전법 일기

'전법포교'라는 수행의 길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였다

안양에 포교당을 개원한 지 5년이 지났다. 스님들이 포교당을 개원할 때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더불어 전국비구니회에 국제부 국장 소임도 제안 받게 되었다. 비상근직이긴 해도 포교당 운영엔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고민 끝에 선배스님께 여쭈었다. 대답이 걸작이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마라."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면 받아들여라. 다 이유가 있다."

선배스님 말씀에 두 말 않고 받아들였다. 소임도 시대도 받아들이고 나니 진짜 할 일이 보였다.

코로나19로 큰 사찰들이 산문을 닫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하나 둘씩 늘었고 온라인으로 중계도 하다 보니 많진 않아도 전국의 불자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 처음 시작하는 절이라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이 가지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도와 주셨다.

제12대 비구니회장이셨던 본각 스님부터 현재 제13대 회장이신 광용 스님(당시 부회장), 그 외 부장, 국장스님들이 정신·물질적으로 함께 해주셨다. 스님들께서 애쓴다며 밑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필자의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 잡아 포교에 싹을 틔워줬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포교란 이런 것이구나. 주변을 잘 살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임을 알게 됐다.

사찰이 안양교도소와 가깝다보니 자연스레 포교도 교정교화와 연결되었다. 정심중고등학교인 소녀 보호감찰시설에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보러 간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에는 5~7명이었던 학생들이 현재는 25명 정도로 늘었다. 재소자도 늘었지만 불교 법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과 미소에 같이 봉사하던 스님들과 봉사자 선생님들도 신이 났다.

그러던 재작년 이맘때 쯤, 선배스님께서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다. 갑작스런 수술과 요양을 위해 당신이 맡고 계셨던 성신여대 대학생 법사 소임을 부탁하셨다. 처음 접해본 소임이었지만 왠지 자신이 있었다. 이젠 그 노하우를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배스님이 걱정이었다. 비록 완치 판정을 받으시긴 했어도 갑상선암도 있었던 스님이라 이번엔 걱정이 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렇게 병이 많으면 으레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알았다.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말이다. 선배스님도 그 병을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포교와 수행이 둘이 아니라 말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이 그 뜻이다. 수행의 기본은 방하착(放下著), 내려놓음이다. 내려놓는다는 뜻은 온전히 받아들임에서 비롯된다.

나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대를 받아들일 때 수행의 첫 걸음이자 전법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빛나는 소금 기둥이 되고 싶다

깊은 밤, 가로등이 흐릿한 불빛으로 떨고 있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바람의 기척에 몸을 움칠거린다. 물기가 쏙 빠진 소금 알맹이들은 더는 썩지 않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바싹 마른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컴컴한 하수구 틈새로 곤두박질한다. 그만해도 다행이다. 도둑고양이가 먹이를 찾으러 낙엽 위를 살금살금 걸으면 핏기 빠진 낙엽은 그만 부서지고 만다.

낙엽이 밟혀 실핏줄이 터질 때 그 울음소리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생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못하면 불확실한 세상과 힘겨운 현실에 항복하고 마는 것인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생멸 이전으로 나아가는 유예 상태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단수이면서 복수인 낙엽들, 무수한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체되어 미완의 말줄임표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희미한 달빛마저 자취를 감춘 겨울밤이 허무한 멜랑꼴리로 깊어간다. 바람이 진눈깨비를 몰고 와 창유리를 흔든다. 진눈깨비는 자취를 감추고 물방울들이 유리창에 가는 선을 그으며 천천히 흘러내린다. 나는 손으로 유리창을 훔쳐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입안에서 소금 맛이 살짝 나는 것 같다. 하얀 소금꽃이 축축한 겨울에도 피어나는 것인가.



그림 · 최주현

책상의 앉은뱅이 달력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장이 엽록소를 잃은 누런 잎새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다. 한 해를 마감하는 며칠 남지 않은 날짜들은 회한과 안타까움으로 한숨짓고 있다. 세월이 몸피를 지닌 것도 아니고, 저 달력 속의 숫자들은 한낱 개념이 아닌가. 그런데도 나는 한 해의 끝에서는 떠도는 낙엽처럼 침울하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소금이 되고 싶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차가운 겨울밤에 덜덜 떨고 있다.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더 걸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을까? 그녀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아냐, 일상의 익숙한 삶이 그녀를 붙잡았을 것이다. 나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신의 명령이나 사회적으로 조성된 과격한 제도를 뿌리치지 못한 연약함도 부끄럽다. 하지만 삶을 좀 먹는 것은 낡은 고정관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안이한 행동,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편협된 사고, 절제할 줄 모르는 감정, 여기에 게으름이나 나태함 같은 그릇된 습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쌓여 안이한 삶이 되어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어찌 소금 기둥도 소금 장미로 피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허무와 불안과 미혹으로 엉클어진 마음을 정화하는 순백의 소금 결정체가 되고 싶었다. 오만과 편견과 자랑이 난무하는 대화에 침묵으로 감칠맛을 드리우는 소금 알갱이가 되리라 다짐했다.

갑진년(甲辰年) 연말, 나는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져 삶을 부식시키는 탐진치(貪瞋痴)를 빼내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기둥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 소금 눈물이 흐를수록 갈증은 심해진다. 고요한 정적 속에 가부좌로 앉아 본다.

〈작가〉

기자칼럼

경주 낭산 '능지탑', 재조명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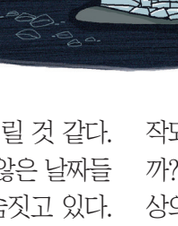
경주 동남쪽의 '낭산(狼山)'은 선덕여왕릉을 비롯한 주요 신라왕실 및 불교 유적이 밀집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신성한 '불국토(佛國土)'로 불려왔다. 경주오악인 남산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낭산에 불교적 가치 조명이 필요한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낭산 서쪽의 '능지탑(陵只塔)'이다.

능시탑 또는 연화탑으로 불린 능지탑은 1969~1971년간 4차례에 걸친 낭산 일대 조사에 따라 신라 문무왕의 화장터로 추정됐다. '문무왕릉비'가 발견된 사천왕사지와 능지탑이 가까운 점, 능지탑의 '능(陵)'이 무덤을 뜻하는 한자인 점, 탑의 내부 중앙 하단부와 주변 지층이 까맣게 그을리고 숯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능지탑 일대 조사결과를 전부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1970년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탑 주변에 진흙으로 빚은 소조불좌상과 대좌 조각들이 발견됐다. 또한 탑 몸체 사면에 불상을 봉안하던 너비 약 4m의 감실이 확인돼 능지탑이 단순한 화장터가 아닌 불탑(佛塔)으로 기능했음을 암시한다.

국가유산청 주최로 11월 13~14일에 열린 '신라 낭산의 시간, 미래로 잇다' 학술대회 토론자들은 낭산 능지탑에 대한 조사가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기조강연을 맡았던 박방룡 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은 "그을음을 보고 능지탑을 화장터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복원된 석재들 중 불상과 연화탑 등을 면밀히 조사해 탑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좌장을 맡은 강봉원 문화재위원장 역시 "향후 능지탑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능지탑 재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 역사의 대표 불교국 신라가 불국토로 여긴 낭산에 불교적 가치가 저평가된 문화유산이 있는 것은 불교와 문화유산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과 마찬가지다. 능지탑 재연구는 신라 불교유산의 재조명뿐만 아니라, 경주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가치와 의미를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불국토에 잠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기 위한 연구를 불교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시작할 때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